

# TRANS- HUMANITIES

---

**Title : 브레히트의 희곡 『도시의 정글 속에서』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Hybrid Identity as Described in Bertolt Brecht's Play *In  
the Jungle of Cities***

Author(s) : 곽정연 (GOAK Jeang-Yean)

Source : *Trans-Humanities*, Vol. 6 No. 2 (2013), pp. 59-82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http://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브레히트의 희곡 『도시의 정글 속에서』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곽정연

### 1. 서론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가 1927년에 출간한 희곡 『도시의 정글 속에서』(*Im Dickicht der Städte*)는 정글 같은 대도시 시카고에서 벌어지는 두 남자의 투쟁을 다루고 있다. 브레히트는 권투경기에서 이 작품의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시골 출신의 이상주의자 조지 가르가(George Garga)와 대도시에 적응한 현실주의자 쉘링크(Schlink)는 서로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상대방의 특성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에 이들의 정체성은 혼종화 된다.

혼종은 본래 식물학에서 접목이나 교차 수분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종들이 혼합되어 생긴 새로운 제3의 종을 일컫는 개념에서 유래한다.<sup>1)</sup> 19

---

곽정연 덕성여대 독어독문학과

1) 혼종에 관한 개념은 줄고, 곽정연, 「괴펜의 소설 “풀밭 위의 비둘기들”에 나타난 문화혼종성」, 『독어교육』제50집 (2011): 337쪽 이하에서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세기 식민담론에서 혼종성이라는 개념은 잡혼이나 이종교배의 결과로 생성된 산물들을 비하하며 일컫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알프레트 쉘츠(Alfred Schultz)는 『인종 혹은 잡종』(*Race or Mongrel*, 1908)에서 고대국가의 몰락은 이방의 혈통들과 결혼한 것에 기인하며 한 국가의 부강은 인종의 순수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면서 혼종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이승갑 173).

혼종은 19세기에 생리학적인 의미로 사용되다가 20세기에 들어서는 문화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혼종성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호미 바바(Homi Bhabha)가 말하는 혼종성은 주류 문화와의 동화로 귀결되는 다양한 문화들의 단순한 혼합현상이 아니라, 지배의 상황에서 피지배자의 저항으로 은폐된 권력관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창조적인 문화 간의 혼합현상이다.

본고는 브레히트의 희곡 『도시의 정글 속에서』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정체성이 혼종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혼종화의 결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모든 브레히트의 희곡 중에서 연극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기이하고 혼란스럽고, 독특하고 난해한 작품으로 평가된다(Bahr 67).

또한 등장인물들의 행동의 동기가 모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조리극의 선두로 여겨진다(Voigts 67). 본고는 대표적인 탈식민주의 이론가인 호미 바바의 이론과 정신분석학을 활용하여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이 난해한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 상이한 문화들이 경계를 넘어 서로 교차하고 공존하는 오늘날의 탈경계 시대에 이 작품이 주는 의미를 성찰하고자 한다.

## 2. 모방과 저항

쉴링크는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비인간적인 작업환경을 견뎌내고, 일곱 살에 미국으로 건너와 자본주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습득하여 성공한 54세의 목재상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감정과 감각을 상실하고, 굳어버린 심장과 느끼지 못하는 “두꺼운 피부(dicke Haut)”(Brecht 154)를 갖게 된다. 그는 도서대여점에서 일하는 가르가를 찾아와서 기묘한 제안을 한다. 10불의 값을 치르고 책에 대한 가르가의 생각을 사겠다는 것이다. 가르가가 자신의 생각을 파는 것을 거절하자 쉴링크는 점점 가격을 올린다. 가르기는 자신의 생각을 사고 파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쉴링크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그는 자신은 “매춘부(Prostituierte)”(Brecht 128)가 아니라고 말하며 쉴링크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파는 것은 여자가 몸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치욕스러운 일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적 산물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오로지 구매자가 규정하는 시장가치만을 가질 뿐이다(정초왕 107). 가르가는 모든 것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규정하는 자본주의 속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적 가치를 고수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초원에서 온 가르가는 가난한 환경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타이티나 남쪽 지방으로 가서 벌목꾼으로 일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순수한 꿈을 지닌 청년이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유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인 것이다(Gisela 128). 책에 문혀 살며 문학의 가치를 고수하고 있는 그에게 유일한 낙은 가끔 찾아가는 여자 친구 제인(Jane)과 술뿐이다.

쉴링크는 가난 때문에 가족과 여자 친구가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가르가를 비웃으면서 가르가에게 “뭐가 더 나은지 알아야만 되오. 일 파운드의 생선이나 아니면 생각 따위

나 ... 당신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인생을 전혀 모르기 때문인 거야” (Brecht 128)<sup>2)</sup>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가르가에게 “어느 날과도 같지 않은 오늘 오전, 당신에 대한 투쟁을 개시하겠소. 결투는 당신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시작하지.”(Brecht 129)<sup>3)</sup>라고 말하며 결투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쉴링크와 그의 무리들은 사장에게 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행패를 부린다. 이어서 가르가를 도발하기 위해 매수된 제인을 도서대여점으로 불러들인다. 쉴링크는 이미 가르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만남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내의를 재봉하며 삶을 연명하던 제인은 외로움과 가난에 지쳐 이미 가르가의 간계로 매춘의 늪에 빠져 있다. 제인을 이용한 심리적 협박에도 가르가는 굴하지 않고 그의 생각을 팔지 않는다. 결국 가르가는 해고당하고, 혼란에 빠진 그는 제인을 가리키면서 “예, 나는 이 여자를 경매에 붙이겠소!”(Brecht 135)<sup>4)</sup>라고 말한다. 뒤이어 그는 옷을 벗어던진 채 “부탁하오.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Brecht 135)<sup>5)</sup>라고 소리지르며 뛰쳐나간다.

쉴링크로 인해 삶의 터전인 직장을 잃은 가르가는 그의 애인과 가족에게 느꼈던 의무감을 벗어던지고, 그의 정체성은 붕괴되기 시작한다. 가르가의 실직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삶의 기반을 허물고, 가족은 해체되기 시작한다. 가르가의 여동생 메리(Marie)는 쉴링크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파경을 맞은 뒤 창녀가 되고,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가게 된다. 모든 삶의 근거를 잃

2) 『도시의 정글 속에서』의 번역은 베르톨트 브레히트, 『도시의 정글 속에서』, 정초왕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Man muß wissen, was besser ist: ein Pfund Fische oder eine Ansicht [...]. Daß Sie Ansichten haben, das kommt, weil Sie nichts vom Leben verstehen.”

3) “Und an diesem Vormittag, der nicht wie immer ist, eröffne ich den Kampf gegen Sie. Ich beginne ihn damit, daß ich Ihre Plattform erschütterte.”

4) “Ja, ich versteigere diese Frau!”

5) “Ich bitte, ich bitte um meine Freiheit.”

아버리고 의무에서도 벗어난 가르가에게 남은 것은 쉐링크에 대한 분노이다. 이러한 터무니없고 강력한 쉐링크의 공격은 그에게 폭력에 대한 충동을 일깨운다. 두 주일 후 가르가는 권총을 들고 쉐링크의 목재회사로 찾아간다. 그는 쉐링크가 자신에게 결투를 신청한 동기도 묻지 않은 채 그가 자신보다 더 나은 자라고 자처하는 것만으로도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결투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총을 손에 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Brecht 138)<sup>6)</sup>라고 말한다. 가르가는 이제 쉐링크에게서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그러자 쉐링크는 놀랍게도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인 목재산업과 자신의 집을 넘겨주며 굴종적인 자세를 취한다.

“예를 들면 내 집과 내 목재회사가 나로 하여금 당신 목덜미에 사냥개를 몰아댈 수 있게 해 주었지. 돈이 전부니까, 하지만 가르가 씨, 오늘부터 나의 집은 당신 것이고, 이 목재회사도 당신 소유요. 난 내 운명을 당신 손아귀에 맡기겠소. 당신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난 당신의 부하요.”(Brecht 138).<sup>7)</sup>

쉐링크는 자신의 무기인 자본을 가르가에게 넘겨 그를 자신의 위치에 세우고 자신을 모방하게 만든다. 가르가는 목재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의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거부하던 매수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정초왕 109). 자본을 가진 자가 된 가르가는 대도시 정글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배우게 된다(Honeck 11). 호미 바비는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관리하기 위해 피지배자가 자신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란다

6) “Auge um Auge, Zahn um Zahn”

7) “Mein Haus und mein Holzhandel zum Beispiel setzten mich instand, Ihnen die Hunde auf den Hals zu jagen. Geld ist alles. Gut. Aber mein Haus ist das Ihrige, dieser Holzhandel gehört Ihnen. Von heute ab, Mr. Garga, lege ich mein Geschick in Ihre Hände. Sie sind mir unbekannt. Von heute ab bin ich Ihre Kreatur.”

고 설명한다.<sup>8)</sup> 그러나 동화되는 과정에서 피지배자가 자신과 완전히 동일해지면 통치의 근거가 되는 문화적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편집증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지배자는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 않은 차이의 주체로서(als dem Subjekt einer Differenz, das fast, aber doch nicht ganz dasselbe ist)” 변화된 타자를 만들고자 한다(Bhabha 126). 이로써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자신을 모방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쉘링크와 가르가의 관계는 식민지시대처럼 명확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르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의 주위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는 쉘링크는 관계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한다. 결투를 제안하기 전에 쉘링크는 가르가의 애인뿐 아니라 여동생과 관계를 맺어 그들을 조정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감정과 감각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외로운 도시인 쉘링크는 자신과 정반대의 생활방식을 영위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도시의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주의자 가르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쉘링크는 자신이 굴욕을 참아가며 이론 성공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하는 가르가에게 적대감을 품고, 그의 순진한 이상주의를 파괴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는 그들의 결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당신이! 고용된 권투선수가! 주정뱅이 점원이! 내가 십 달러에 사들인 제 앞가림도 못하던 이상주의자, 아무 것도 아닌 것이!”<sup>9)</sup>(Brecht

8) 호미 바바의 모방에 관한 이론은 좋고, 광정연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적 저항 -탈식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제57집 (2011): 4쪽 이하의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인용하였음.

9) “Ein gemieteter Faustkämpfer! Ein betrunkenener Verkäufer! Den ich für zehn Dollar gekauft habe, ein Idealist, der nicht seine Beine unterscheiden konnte, ein Nichts!”

189)라고 말하면서 가르가에 대해 경멸을 드러낸다. 다른 한편 여러 차례 쉴링크가 표현한 사랑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자신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르가를 그는 동경한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였지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고독한 그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가르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자 한다(Goak 200).

쉴링크는 대도시에서 성공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모욕을 견디려고 감정과 감각을 상실하고 두꺼운 피부를 얻게 되었다.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제인에게 쉴링크는 “보시오, 내 육체는 마비되었소. 내 피부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인간의 피부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얇아. 그래서 인간은 피부가 두꺼워지도록 애를 쓰지. 피부의 성장을 멈출 수만 있다면 방법은 아무래도 좋아. 가령 제작된 가죽조각은 그대로 있지만 피부는 계속 자라지, 그것은 점점 두꺼워진단 말이야.”(Brecht 153f.)<sup>10)</sup>라고 말한다.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는 병에 걸린 쉴링크는 피부가 얇은 가르가가 이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이은희 99). 온갖 굴욕을 견디며 부를 축적한 자신과는 달리 가난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팔지 않는 가르가가 그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쉴링크는 적대감과 동경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갖고 관찰한다.

목재사업을 인수받은 가르가는 쉴링크에게 복수하기 위해 목재회사를 의도적으로 파산하게 만든다. 그는 목재를 이중으로 처분하고 쉴링크의 서기에게 장부를 파괴하도록 한 다음, 쉴링크의 집을 구세군에게 기부한다. 가르가는 구세군의 사제에게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대가로 쉴링크의

---

10) “Sehen Sie: mein Körper ist wie taub, davon wird sogar meine Haut betroffen. Die Menschenhaut im natürlichen Zustande ist zu dünn für diese Welt, deshalb sorgt der Mensch dafür, daß sie dicker wird. Die Methode wäre unanfechtbar, wenn man das Wachstum stoppen könnte. Ein Stück präpariertes Leder zum Beispiel bleibt, aber eine Haut wächst, sie wird dicker und dicker.”



집을 고아와 주정뱅이들에게 주겠다고 말한다. 쉴링크가 그의 가족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생각을 팔라고 설득했던 것처럼 가르가는 망설이는 사제에게 “고아들 위로 눈이 퍼붓고 있소, 술꾼들은 무더기로 썩어가고 있고, 그런데도 당신은 면상을 수호하고 있구먼.”(Brecht 143)<sup>11)</sup>이라고 말하면서 질책한다. 결국 사제는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허락하고, 가르가는 쉴링크에게 사제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명령한다. 사제는 노숙자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게 되지만, 결국 나중에 모욕감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가르가의 이러한 모욕적인 행동을 쉴링크는 묵묵히 받아들인다. “내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 여러 번. 그는 그걸 삼켰지. 그를 경멸해.”(Brecht 144)<sup>12)</sup>라고 가르가는 메리에게 말한다. 가르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쉴링크에게 더욱 화가 난다. 합리적인 부의 축적이 중요하지 않은 가르가는 쉴링크에게서 받은 것을 보란 듯이 탕진한다. 가족도 버리고 쉴링크와의 관계도 청산하고 가르가는 꿈꾸던 타이티로 떠나고자 한다.

하지만 쉴링크는 가르가의 집에 세 들어 살면서 석탄배달을 하면서 번 돈으로 가르가의 가족을 부양한다. 쉴링크는 가르가의 자리를 점유 하면서 자신을 가르가와 동일시한다. 동일시는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이 대상 또는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주체를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동일시는 타인과 감정적으로 결합하는 데 있어 가장 초기의 근원적 형식이다(Freud 98). 프로이트는 아이가 어머니와의 이차적 결합을 방해하는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품지만 거세공포 때문에 아버지와의 경쟁을 포기하고 아버지처럼 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즉 동일시하는 자는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동경과 적대감을 동시에 느끼게

11) “Es schneit auf die Waisen. Die Trinker verkommen in Haufen. Sie behüten Ihr Gesicht.”

12) “Ich spuckte ihm ins Gesicht: viele Male. Er schluckt es. Ich verachte ihn.”

된다. 쉘링크도 자기와 다르게 사는 이상주의자인 가르가에 대한 동경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그에 대한 적대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

쉘링크가 가족을 미끼로 사용하였듯이 가르가는 누이동생을 투쟁의 무기로 이용하고 결혼을 방패막이로 사용한다(정초왕 109). 가르가는 이중으로 목재를 판매한 사기 사건으로 삼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가르가는 감옥에 가기 전 자신이 출소할 때 쉘링크가 파멸하도록 은밀히 준비한다. 그가 행한 각종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고,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부추겨 쉘링크의 뒤를 쫓게 한다.

라캉은 「대상 a로서의 응시에 관하여」(du regard comme objet petit a 1973)에서 모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13)</sup>

아칸시페라(acanthifera)라는 형용사를 붙여 부르는 바다대벌레(Caprella)라는 이름의 작은 갑각류가 동물과 식물의 중간쯤 되는 이끼벌레(Briozoaren) 가운데 정착할 때는 무언가를 모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의 식물이나 다름없는 이 이끼벌레라는 동물에게 있는 얼룩입니다. [...] 바로 이 얼룩진 형태에 그 갑각류가 적응하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반점이 되고 그림이 되어 자신을 그림 속에 기입해 넣습니다. [...] 모방은 배후에 있는 그 자신이라 불릴 수 있는 것과 구별되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모방의 효과는 엄밀하게 기술적인 의미에서 위장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배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얼룩덜룩한 배경을 바탕으로 스스로 얼룩덜룩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확히 인간의 군사 작전에서 사용되는 위장술처럼 작용합니다(Lacan 105f.).

모방에서 사람들은 보통 원전과 얼마나 비슷한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

13) 라캉의 모방에 관한 이론은 줄고, 광정연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적 저항 -탈식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57집 (2011): 5쪽 이하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였음.

라캉은 모방 뒤에 숨기고 있는 원전과의 차이에 주목한다. 라캉은 모방이 환경에 동화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환경을 교란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변의 바다가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라고 볼 때, 이 바다생물의 위장술은 그 그림에 얼룩을 만드는 것이고, 그와는 다른 이물질 을 삽입하는 것이다. 군인들이 주변 환경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게 위장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교란시켜 적대적인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바버는 라캉의 모방이론에 착안하여 모방에서 위장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피지배자가 생존하기 위해 지배자를 따라하지만 이것은 단지 위장이고,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바버에게 모방은 군인이 눈에 띄지 않게 위장하여 적을 공격하듯이, 결국 지배 권력을 교란하고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것이다. 모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변형과 치환이 일어나는 데, 이것은 권력의 나르시시즘적인 요구를 해체하고 동일화과정을 전복의 전략 속에 재연루시켜서 모방자는 받은 것을 되돌려 주게 된다(Bhabha 165). 가르가도 생존하기 위해 쉐링크를 따라하면서 그보다 더욱 냉혹해져 자신을 위장하고 그의 파멸을 준비한다.

### 3. 혼종적 정체성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 속처럼 대도시에서는 돈,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인간은 상품이 되어 값이 매겨지고, 경매에 내붙여진다(이은희 105). 여자들의 육체도 노골적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흥정된다(이은희 105). 이런 현실에서 자신의 정신적 가치를 지키려는 가난한 가르가는 대도시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한 쉐링크의 공

격을 받자 단번에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다. 애인과 가족과의 관계도 붕괴되고 정체성은 해체된다. 모든 개인적 노력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은 가르가는 쉘링크를 모방하면서 희망을 포기하고, 새로이 인식한 시장의 메커니즘을 어머니에게 설명한다.

[...] 어머니의 눈물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간을 맞추고 어머니의 땀으로 아이들의 셔츠를 세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겐 빙하시대가 될 때까지 담보가 붙어 있는 셈인데, 그 뿌리는 가슴속에 있는 거죠. 그가 다 성장하여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 하게 되면 그는 이미 몸값이 치러지고, 헌납되고, 낙인이 찍히고, 높은 값으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에겐 파멸할 자유조차 없다고요.(Brecht 147).<sup>14)</sup>

인간을 교환물품으로서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인간은 조금의 자유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가르가는 깨닫게 된 것이다. 초원지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가르가의 평원지대의 생명력이 살아있던 얼굴은 쉘링크처럼 대도시의 생존방식을 따라하면서 이제 호박석처럼 단단해졌다. 가르가와 쉘링크는 마지막 만남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가르가: [...] 어린 시절을 다시 한 번 눈앞에 그려보고 있었소. 푸른 유채잎 만발한 기름진 들판, 협곡에서 노니는 스킵크와 몰살 급한 여울목.

쉘링크: 맞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소! 이제 그 얼굴은 호박석처럼 단단해졌지. 투명한 그 돌 속에 이따금 작은

---

14) “[...] die Tränen der Mutter salzen den Kindern die Mahlzeit, und ihr Schweiß wäscht ihnen das Hemd, und man ist gesichert bis in die Eiszeit, und die Wurzel sitzt im Herz. Und ist er ausgewachsen und will etwas tun mit Haut und Haar, dann ist er bezahlt, eingeweiht, abgestempelt, verkauft zu hohem Preis, und er hat nicht einmal die Freiheit unterzugehen.”

이제 가르가는 쉴링크처럼 두꺼운 피부에 어린 시절 평화로운 풍광이 아니라 동물의 시체가 들여다보이는 생명력을 잃은 얼굴을 가진 도시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쉴링크보다 야비하고 냉혹한 인간으로 변한 가르가는 결국 쉴링크를 자살로 몰아간다. 가르가는 쉴링크가 뛰어난 사업 수단으로 다시 일으킨 목재회사에 자신의 가족을 끼워 팔아버리고, 자신이 처음에 꿈꿨던 타이티가 아닌 대도시의 표상인 뉴욕을 향해 떠난다. 가르가는 쉴링크에게 자신이 결정한 것을 “난 가리라. 그리고 강철 같은 사지와 거무스름한 피부를 갖고서 두 눈에 분노를 담고 돌아오리라. 내가 강한 종족의 일원임을 나의 얼굴을 보고서 믿게될 터리라. 난 황금을 가질 것이며 빈둥거리면서 잔인해지겠노라.”(Brecht 188)<sup>16)</sup>고 말한다. 그는 이제 대도시의 원칙을 실행하면서 강한 승리자로서 살아 남고자 한다.

쉴링크는 가르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면서 정체성이 해체되기 시작한다. 가르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그에게 양도하고 그와 동일시하면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가르가가 결투가 끝났다고 선언하자 쉴링크는 “이제 이렇게 하찮게 끝나다니. 당신은 그것이 무엇이었는데도 파악하지 못했소. 당신은 내 종말을 원했지만 내가 원하는 건 결투였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말이요.”<sup>17)</sup>

---

15) “GARGA [...] Ich hatte meine Kindheit noch vor mir. Die Ölfelder mit dem blauen Raps. Der Iltis in den Schluchten und die leichten Wasserschnellen.

SHLINK Richtig, das alles war in Ihrem Gesicht! Jetzt ist es hart wie Bernstein, man findet mitunter Tierleichen in ihm, der durchsichtig ist.”

16) “Ich werde hingehen, und ich werde zurückkommen mit eisernen Gliedern, dunkler Haut, die Wut im Auge. Meinem Gesicht nach wird man glauben, daß ich von starker Rasse bin. Ich werde Gold haben, müßig sein und brutal.”

17) “Jetzt endet es in Niedrigkeit. Sie haben nicht begriffen, was es war.

(Brecht 190)라고 말한다. 그러자 가르기는 “정신적인 것이라고, 보시오, 그런 건 아무 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거지.”(Brecht 190)<sup>18)</sup>라고 응수한다. 쉴링크는 정신적인 교류를 원하게 되고, 이상주의자였던 가르기는 정신적인 것이란 무의미하다는 확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대도시의 원칙에 적응하여 성공한 자로서 살아남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쉴링크는 가르기가 시주한 인종주의자들의 추격에 쫓기며 모든 재산을 가르기에게 남기고 독약을 마셔 자살한다. 두 남자의 투쟁은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을 해체시키고, 서로의 특징을 받아들여 새로운 혼종적 정체성을 생성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배자는 피지배자가 자신과 유사해지기를 바라지만, 피지배자의 모방은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서 과편화되고 불완전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 분열되고 혼란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고 바비는 설명한다. 가르기에게서 대안적인 삶을 찾았던 쉴링크는 자신과 유사해지는 가르기에게서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혼란스러워진다. 바비는 모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확정성 속에서 지배자는 상징계적인 친밀성의 공간에서 이탈해 상징계의 경계선을 넘어서 실재계를 만나고, 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출발점이 된다고 한다. 쉴링크는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대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선택한다.

지배자는 피지배자가 자신을 따라하지만 완전히 똑같아지길 원하지

---

Sie wollten mein Ende, aber ich wollte den Kampf. Nicht das Körperliche, sondern das Geistige war es.”

18) “Und das Geistige, das sehen Sie, das ist nichts. Es ist nicht wichtig, der Stärkere zu sein, sondern der Lebendige.”

않는다. 쉘링크는 자신의 속물근성을 경멸하는 가르가가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삶의 기반을 빼앗지만 한편으로 그의 방식대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주길 기대한다. 쉘링크는 내심 가르가가 사는 방식을 부러워하면서 그의 방식대로 자신의 진정한 맞수가 되길 바란다.<sup>19)</sup> 바바에 따르면, 허용과 금지가 뒤섞인 지배자의 양가적 요구에 피지배자는 규칙을 따르면서 여기는 양가적 반응을 보인다. 즉 피지배자도 마찬가지로 생존하기 위해 복종의 표시로서 지배자를 흉내 내지만 동시에 지배자에게 굴욕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고 거짓을 꾸미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방은 강요하는 쪽에서나 강요당하는 쪽에서 모두 양가적 특성을 가지고 차이를 생산한다. 따라하기를 바라면서 한편 자기 것을 고수하기를 바라는 쉘링크의 양가적 요구에 가르가는 쉘링크보다 더욱 대도시의 삶에 적응하여 냉혹해진다. 바바는 모방이 지배자의 특성이 단순히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특성이 혼종화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 저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설명한다. 가르가는 쉘링크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면서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쉘링크를 파멸로 이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바바의 이론처럼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본질을 소외시키고 쉘링크의 삶의 방식을 답습한다. 따라서 바바가 말한 지금까지의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창조적인 혼종성은 생성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상대방을 모방하며 상대방의 특성을 받아들여 변화하지만 서로 소통하지는 못한다. 쉘링크는 가르가에게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말한다.

---

19) 바바의 이론에서 모방을 유도하는 자는 통치의 근거가 되는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 모방자가 자신과 완전히 똑같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쉘링크는 이러한 마음과 함께 가르가가 자신의 허무한 삶에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보존하기를 바라면서 자신과 완전히 동일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 육체적 접촉이 주는 따스함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은총이지! 성기의 결합만이 유일한 은총이다. 그것도 두 동강난 언어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진 못해. 그런데도 그들은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 자신들을 편들어주길 바라는 존재들을 생산해내려고 한 몸이 되지. 그리고는 세대와 세대 간에 서로 차가운 눈길만 오고가는 거야. (Brecht 187)<sup>20)</sup>

쉴링크는 사랑조차도 잠시의 위안을 줄 수 있을망정 소통을 가능하게 하진 않는다고 말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은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인과 경쟁과 투쟁만 하면서 살아온 쉴링크는 단지 투쟁을 통해서만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투쟁은 직접적인 고통을 줌으로써 두꺼운 피부를 가진 무감각한 그를 자극하고, 그에게 타인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하지만 밀림 속 맹수들에게는 가능했던 순수한 투쟁조차 대도시 정글에서는 불가능하다. 쉴링크는 결투를 통한 접촉을 원했지만, 결국 “끝도 없는 고립(Die unendliche Vereinzelung)”이 “적대관계(Feindschaft)”를 통한 접촉조차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만들었고(Brecht 187), 쉴링크의 소통의 시도는 실패한다.

#### 4. 결론

초원에서 온 가르기는 이상주의자로서 정신적인 것을 중시하는 근대

---

20) “Die Liebe, Wärme aus Körpernähe, ist unsere einzige Gnade in der Finsternis! Aber die Vereinigung der Organe ist die einzige, sie überbrückt nicht die Entzweiung der Sprache. Dennoch vereinigen sie sich, Wesen zu erzeugen, die ihnen in ihrer trostlosen Vereinzelung beistehen möchten. Und die Generationen blicken sich kalt in die Augen.”



화 이전의 전원문화를 대표하고, 쉘링크는 현실주의자로서 자본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근대화된 대도시의 문화를 대변한다. 가르가와 쉘링크는 서로 투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상대방의 특성을 받아들인다. 대도시의 삶에 적합하지 않았던 가르가는 자신의 본성을 억압하고 성공한 현실주의자 쉘링크의 삶의 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쉘링크보다 더욱 냉혹해져 대도시에서 강자로서 살아남게 된다. 힘이 있는 동물이 정글을 지배하듯, 대도시를 지배하는 자는 자본을 가진 자이다. 자본에 매수되기를 거부했던 가르가는 쉘링크를 모방하면서 남은 가족들을 목재 회사에 없어 팔아치울 만큼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에 적응한다. 결국 가르가는 쉘링크를 자살로 몰아넣고, 돈을 챙겨 대도시 뉴욕으로 떠난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그의 가족도 버리고 꿈도 잃게 된다(Bahr 75). 바바가 말한 것처럼 위장의 기능을 가진 모방은 본래의 것을 변형하고 치환해 모방을 유도한 자, 쉘링크의 사고체계를 해체한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 쉘링크는 가르가처럼 대도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결국 외로운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쉘링크의 죽음은 고립을 자초하는 가르가의 미래일 수 있다(Goak 200). 서로 다른 문화를 대변하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르가는 자신의 본성을 소외시키고, 쉘링크와의 소통은 일어나지 않아 긍정적인 의미의 혼종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는 정글 같은 대도시의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바바가 말한 창조적인 혼종적인 문화는 생성되지 못하고, 대도시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화될 뿐이다.

이 희곡의 배경인 시카고를 브레히트는 대도시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W. Seliger 48). 시카고는 건달 같은 스킨니(Skinny), 투쟁이 비비, 수상쩍은 하숙집 주인 벌레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들끓는, 인간적인 소통이 불가능하고 냉혹하게 인간이 거래되는 시장, 매복한 적으로부터 기습을 당하는 정글과 같은 곳이다. 브레히트가 작품 창작 당시 머물렀

던 베를린은 인구 400만 명으로 뉴욕과 런던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로서 실업과 인플레이션, 중산층의 빈민화로 혼란스럽고 척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W. Seliger 39). 브레히트는 시카고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삼아 낯설게 하기 효과를 자아내면서 20년대 베를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독일보다 더 현대화된 미국의 대도시에 독일 대도시의 모습을 투사함으로써 독일이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Honeck 13).

1차 대전 후 독일은 전승국이자 세계 최강국으로서 정치, 사회, 문화적 모범으로 부상한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우익에서는 달러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화라고까지 표현했다. 미국에서 유입된 경제모델, 대량생산방식, 그리고 영화산업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당시에 출판된 수많은 미국에 관한 신문기사, 잡지기고문, 여행기는 미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이와 함께 미국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미국의 합리적인 경제모델과 영화와 재즈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문화는 독일인에게 미국을 새로운 현대문명의 표상처럼 여기게 하였다. 미국은 독일문화의 현대적인 대안처럼 인식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약탈적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독단주의, 배타적 이기주의, 문화적 통속성, 획일성, 저속성 등이 지배하는 나라로 여겨졌다. 독일인은 전통적인 문화와 엘리트적 아방가르드에 반대하면서 미국식 문물에 환호하는 한편, 기계적인 세계, 유용성, 기능성으로 대변되는 미국문명을 문화의 위기를 가져오는,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다(Kaes 265ff.).

당시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전통과의 단절, 가족과의 관계의 상실, 점점 증가하는 범죄율, 그리고 고립과 소외라는 대도시의 문제가 유럽의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이 부각되고 있었다(W. Seliger 41). 브레히트는 작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한다(W. Seliger 49). 쉘링크는 마지막에 가르가 때문에 쫓기게

될 때 미국식 양복을 입는다. 브레히트는 미국화된 아시아인의 불행한 종말을 보여줌으로써 독일의 미국화의 위험성을 시사한다.

미국은 현재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타문화이다. 독일이 1차 대전 후에 받은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현대화를 이루었듯이, 한국도 개화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여 근대화에 매진하였다. 개화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미관계에서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의존과 자율성 주장, 경탄과 실망, 호감과 반감이라는 양가적인 태도를 표명해왔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견제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방으로도 여겨지지만, 1980년 광주항쟁 당시 군부의 유혈진압을 묵인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국가의 내정에 무력으로까지 간섭하는 제국주의적 침략국가로 인식되기도 한다. 멀리 월남전을 비롯한 이라크전과 최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촛불시위까지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면 서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대화된 미국을 동경하고 이상화하며 모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소련의 붕괴 이후에 절대적인 강자로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급격한 물결 속에서 세계화의 기저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개인이 점점 더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 오늘날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민들은 여전히 실직의 불안과 주택난에 시달리면서 실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배경인 대도시 시카고는 오늘날 우리의 도시와도 유사하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대도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작품은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이런 대도시 문화에 적응하여 성공한 쉴링크에게 남은 것은 고독과 허무뿐이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가르가를 도발하여 정신적인 것을

찾지만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이미 가르가와의 투쟁을 시작하면서 희망이 없는 대도시에서 이러한 종말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가르가에게 “내가 헛바닥에 죽음의 맛을 좀 볼 수 있도록 주둥이 속에 가래나 곰팡이를 처넣어 주려고, 날 저 아래로 끌고 내려가려고 고용된 백인이지!”(Brecht 189)<sup>21</sup>)라고 말한다. 쉴링크는 가르가에게 “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만약 자네가 답을 얻게 되거든 날 기억해주게, 내 입 속에 곰팡이가 슬게 되면”(Brecht 187)<sup>22</sup>)이라는 말을 남긴다. 자본이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냉혹한 대도시에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독자와 관객에게 남겨진다. 남자들에게 종속되어 물건처럼 취급되는 메리와 제인과는 달리 가르가의 어머니 메에(Mäe)는 집을 떠난다. 서로가 서로의 도구가 되어버린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새로운 삶을 찾은 듯이 보이는 메에를 통해 브레히트는 조그만 가능성을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곽정연.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적 저항 - 탈식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독어어문학』 57 (2011): 1-23.
- \_\_\_\_\_. 「괴펜의 소설 『풀밭 위의 비둘기들』에 나타난 문화혼종성」. 『독어교육』 50 (2011): 335-359.
- 베르톨트 브레히트. 『도시의 정글 속에서』. 정초왕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 이승갑. 「한국의 다문화화(多文化化) 사회 현실과 문화민족주의에 대한 신학적

21) “Ein Weißer, gemietet, mich hinunterzuschaffen, mir etwas Ekel oder Moder in das Maul zu stopfen, daß ich den Geschmack des Todes auf die Zunge krige!”

22) “Möglich, ich bekomme keine Antwort. Aber wenn du Antwort bekommst, denke an mich, wenn ich Moder im Mund habe.”

- 성찰: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혼종성(Hybridity)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21(2008): 163-94.
- 이은희. 「폭력의 계보학과 육체에 나타난 폭력의 이미지 -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도시의 정글 속』을 중심으로. 『한국독어독문학 2013년 봄철연합 학술대회 발표집』, 2013. 93-106.
- 정초왕. 「작품소개. 『도시의 정글 속에서』. 베르톨트 브레히트 지음.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101-12.
- Bahr, Gisela E. “Und niemals wird eine Verständigung sein.,” Im Dickicht der Städte.” *Brechts Dramen, Neue Interpretationen*. Ed. Walter Hinderer. Stuttgart: Reclam, 1984. 67 – 88.
- Bhabha, Homi K. *Die Verortung der Kultur, Mit einem Vorwort von Elisabeth Bronfen*. Tübingen: Stauffenburg, 2000.
- Brecht, Bertolt. “Im Dickicht der Städte, Der Kampf zweier Männer in der Riesenstadt Chicago.” *Gesammelte Werke 1, Stücke 1*. Ed. Frankfurt a. M.: Suhrkamp, 1967. 125-93.
- Freud, Sigmund. *Studienausgabe, Bd. 9. Fragen der Gesellschaft, Ursprünge der Religion*. Frankfurt a. M.: S. Fischer, 1993.
- Goak, Jeang-Yean. “Kritik an der Rationalisierung der instrumentellen Vernunft - unter besonderer Aufmerksamkeit auf die Werke von E. T. A. Hoffmann und Bertolt Brecht.” Akten des XII. Internationalen Germanistenkongresses Warschau 2010. *Vielheit und Einheit der Germanistik weltweit, Politische Romantik im 19. und 20. Jahrhundert, Die deutsche Romantik und ihre Folgen, Der deutschsprachige politische Roman*. Ed. Franciszek Grucza. Frankfurt a. M.: Peter Lang, 2012. 197-201.
- Honeck, Christian. *Das Amerikabild Bertolt Brechts am Beispiel des Stückes “Im Dickicht der Städte”*. Norderstedt: Grin Verlag, 2005.
- Kaes, Anton. *Weimarer Republik.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918 – 1933*. Stuttgart: Metzler, 1983.
- Lacan, Jacques. *Die vier Grundbegriffe der Psychoanalyse*. Freiburg: Quadriga, 1978.

Voigts, Manfred. *Brechts Theaterkonzeptionen: Entstehung und Entfaltung bis 1931*. München: Fink, 1977.

W. Seliger, Helfried. *Das Amerikabild Bertold Brechts*. Bonn: Bouvier, 1974.

---

## Works Cited

- Bahr, Gisela E. “‘Und niemals wird eine Verständigung sein.’, *Im Dickicht der Städte*.” *Brechts Dramen, Neue Interpretationen*. Ed. Walter Hinderer. Stuttgart: Reclam, 1984. 67–88.
- Bhabha, Homi K. *Die Verortung der Kultur, Mit einem Vorwort von Elisabeth Bronfen*. Tübingen: Stauffenburg, 2000.
- Brecht, Bertolt. *Dosiui jeonggeul sokeseo [Im Dickicht der Städte]*. Trans. Jeong Cho-Wang.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1999.
- . “Im Dickicht der Städte, Der Kampf zweier Männer in der Riesenstadt Chicago.” *Gesammelte Werke I, Stücke 1*. Ed. Frankfurt a. M.: Suhrkamp, 1967. 125–193.
- Freud, Sigmund. *Studienausgabe, Bd. 9. Fragen der Gesellschaft, Ursprünge der Religion*. Frankfurt a. M.: S. Fischer, 1993.
- Goak, Jeang-Yean. “Kritik an der Rationalisierung der instrumentellen Vernunft-unter besonderer Aufmerksamkeit auf die Werke von E. T. A. Hoffmann und Bertolt Brecht.” Akten des XII. Internationalen Germanistenkongresses Warschau 2010. *Vielheit und Einheit der Germanistik weltweit, Politische Romantik im 19. und 20. Jahrhundert, Die deutsche Romantik und ihre Folgen, Der deutschsprachige politische Roman*. Ed. Franciszek Gruzca. Frankfurt a. M.: Peter Lang, 2012. 197–202.
- . “Damunhwa sahoeseoui munhwajeok jeohang—Talsikminjuui ironul jungsimeuro” [Kultureller Widerstand in d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Postcolonial Studies]. *Dokileomunhak [Deutsche Sprach- und Literaturwissenschaft]* 57 (2012): 1–23.
- . “Köppenui soseol Pulbatwiui Bidulgideue natanan munhwahonjongseong” [Kulturelle Hybridität in Wolfgang Koeppens Roman *Tauben im Gras*]. *Koreanische Zeitschrift für Deutschunterricht* 50 (2011): 335–59.
- Honeck, Christian. *Das Amerikabild Bertolt Brechts am Beispiel des Stückes “Im Dickicht der Städte”*. Norderstedt: Grin Verlag, 2005.
- Jeong Cho-Wang. “Jakpum sogae” [Nachwort]. *Dosiui jeonggeul sokeseo [Im Dickicht der Städte]*. Bertolt Brecht.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2009. 101–12.
- Kaes, Anton. *Weimarer Republik.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918–1933*. Stuttgart: Metzler, 1983.
- Lacan, Jacques. *Die vier Grundbegriffe der Psychoanalyse*. Freiburg: Quadriga, 1978.
- Lee, Seung-gap. “Hangukui damunhwahwa sahoehyeonsilgwa munh waminjokjuuie daehan sinhakjeok seongchal: Homi Bhabhai

- 
- honjongseong gaenyeomeul jungsimeuro” [Culture’s Hybridity and Cultural Nationalism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21 (2008): 163-94.
- Lee Eun-hee. “pokryeokui gyebohakgwa yukchee natanan pokryeokui imiji – Bertolt Brechtui dosiui jeongguel sokeul jungsim euro” [Geneologie der Gewalt und deren Bild am Körper – Im Dichkicht der Städte von Bertolt Brecht]. *Hanguk Dokeodokmunhak 2013nyeon bomcheol yeonhap haksuldaehoe balpyojip* [Tagungsprotokoll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ür Germanistik im Frühling 2013], 2013. 93-106.
- Seliger, Helfried W.. *Das Amerikabild Bertold Brechts*. Bonn: Bouvier, 1974.
- Voigts, Manfred. *Brechts Theaterkonzeptionen: Entstehung und Entfallung bis 1931*. München: Fink, 1977.



## Hybrid Identity as Described in Bertolt Brecht's Play *In the Jungle of Cities*

GOAK Jeang-Yean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Drama of Bertolt Brecht's *In the Jungle of Cities* deals with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battle between Garga, an idealist recently arrived from the prairie, and Shlink, a pragmatic lumber businessman who is entrenched in the city. The play takes place against the background of Chicago in 1912. As the two men come into conflict with each other, they go through a process of dissolution of their identity and accept each other's characteristics. Eventually, both of them lose their own separate identities and are transformed into one hybrid identity. This paper uses psychoanalysis and the theoretical work of Homi Bhabha to attempt an analysis of the two characters' transformation from formal selves into the hybrid identity that combines aspects of both Shlink and Garga. It also examines the meaning of the hybrid identity that results in an era of trans-boundary trajectories, where the various local cultures intersect and co-exist. The play helps us to look at the life of the modern city in a compelling but also chilling way, for the urbanized human being becomes an object of work, and the misery induced by alienation and isolation is rampant. Brecht introduced a defamiliarization effect by setting the American city Chicago as the background to this work. The play was also a warning about Americanization to German audiences, who were being increasingly influenced by America after World War I.

**Keywords :** Hybrid identity, Bertolt Brecht, *In the Jungle of Cities*, Homi Bhabha, Mimicry (혼종적 정체성, 베르톨트 브레히트, 도시의 정글, 호미 바바, 모방)

Received: 5 April 2013  
Reviewed: 5 May 2013  
Accepted: 10 May 2013